

‘한반도 첫 수도로 가는 시간여행’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선사시대부터 미래까지
타임머신 타고 고창여행’

고창군이 한국예총 고창지회와 협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62개 프로그램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33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 결과 고창군이 제출한 ‘한반도 첫 수도로 가는 시간여행’이 최종 선정됐다.

‘한반도 첫 수도로 가는 시간여행’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매일 1회씩 총 5회 시행될 계획이며, 고창군민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3월 선사시대, 4월 조선시대, 5월 일제강점기, 6월 1970년대를 거쳐 7월에는 미래고창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

선사시대의 중심 행사는 거석문명을 꽃피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선포식’으로 한반도 최대의 문화도시였던 고인돌마을의 족장이 주민들에게 지금의 고인돌군 일대를 ‘수도’로 선포하는 퍼포먼스가, 조선시대는 동학군의 고창을 성 무혈입성 행렬은 환영하는 주민들의 퓨전 사극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민세를 부르던 주민과 일본 순사들이 쫓고 쫓기던 현장이 시내 일원에서 플래시몹으로 재현된다.

1970년대는 정발, 미니스커트 단속은 세대풍 자극으로, 통기타 버스킹과 음악다방 세시봉, 고고클럽은 70대 노년층의 추억의 공간으로, 콜라텍은 젊은이들을 위한 무대로 준비되며, 미래고창은 고창의 미래 영광을 상징하는 화려한 드론보기도 선보인다.

아울러 군에서 시행하는 드론교육 이수 농민들이 벌이는 드론 비료살포 시범을 담은 미래 농촌의 풍경과 미디어아트 전, 고창군민 가족 사진전 등 전시회와 고창출신 소설가 은희경 작가의 문학강연,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선포식이 열릴 문화의 전당 광장 모형고인돌 사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기타버스킹 등이 열릴 고창터미널 문화공간 자료사진.

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예총 고창지회 박종은 회장은 “고창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군민이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이자, 관객이며 관객들이 보게 될 모든 공연, 시연, 체험 등은 군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문화생태계의 급속한 변화로 문화적 실행민이 된 농어촌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달래주고 젊은 세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온 군민이 함께 공감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군민이 주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고창사람이 사랑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즐기며, 문화로 하나 되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웅장하고 차갑고 따뜻한 바위덩어리’

김태오 사진전 ‘MASS’ 29일까지 전주 서학동사진관서

사진가 김태오(56)가 전주시 서학동사 진관에서 ‘매스(MASS)’ 전을 연다. 20여 년 간 건축물을 주피사체로 촬영해온 작가다.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주로 촬영하는 건축사진은 섬세한 빛의 표현과 거대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매스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물론 이의 건축 재료에 따른 텍스처, 디자인적 요소인 디테일 표현이 포함된다.

오랜 기간 이런 표현법에 익숙해지고 단련된 작가는 자연스럽게 범위가 넓어졌다. 방향은 자연으로 향한다. 건축이라는 덩어리가 놓인 곳도 도시의 한 부분이지만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시선이 확장된 종착역의 하나는 ‘바위’다. 서울 근처의 산을 오르며 이전에 느끼던 것과 사뭇 달라진 바위를 마주했다. 큰 덩어리의 바위를 보는데 건축적 시각과 자연적 시각이 겹치면서 그 덩어리의 힘과 매력을 보게 됐다. 바위가 가지고 있는 물성에 빠진 것이다. 시간의 쌓임이 텍스처를 이루고 바람과 물에 의한 변형은 형태를 이뤘다. 이 형태는 그 어느 다른 재료보다 작가의 눈과 마음을 이끌었다. 이 물성의 힘은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보다 강하고 표현력 또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김 작가는 건국대에서 건축학, 홍익대 산미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다. 어번 랜스케이프, 건축과 풍경 등의 개인전과 대동산수, 건축과 풍경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건축 사진의 표현기법’, ‘대동산수’, ‘건축도시기행’ 등의 책을 펴냈다.



전시는 2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월·화요일은 휴관한다. /뉴스시스

황석영 작가와 함께하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독서열차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사람을 통해 시대적으로 교감하고 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황석영 작가와 함께하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독서열차’를 연다.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마한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비올라와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신귀백 영화 평론가와의 대담, 비올라와 색소폰 공연, 관객과의 만남 시간이 더해져 단순 강연을 벗어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삼포가는 길’, ‘장길산’, ‘개밥바라기별’, ‘수인’ 등을 집필한 황석영 작가의 짧은 시절과 방북과 망명, 투옥이 이어지는 거침없

고 험난한 삶의 이야기를 대화형식으로 풀어 낼 예정으로 ‘떨리는 몸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말해주는 게 바로 역사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요즈음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나 보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들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희망자는 마한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lib.jje.go.kr/mec>) 또는 전화(☎840-723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광록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서관에서 책과 사람을 통해 소통하고 시대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초가을 고창 판소리 유적지 여행 어때요?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14일부터 3일간 고창읍성서

세계무형문화유산 판소리를 재조명하고 선양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고창에서 열린다.

고창군은 오는 14일부터 3일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전통문화와 소리를 테마로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드높이고 이를 보전해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문화계승 축제인 ‘2018 대한민국 판소리 한

마당’과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고창지역 판소리 유적지 탐방’을 연다.

‘2018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은 명인 명창들의 긍지와 정체성을 회복하여 국악발전과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을 도모할 수 있도록 KBS국악한마당 ‘소리길, 전통의 대를 잇다’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고창지역 국악인들의 소리 동행 ‘고창에 물들다’,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 단막 창극전’, 전통예악원 누리춤의 ‘소리길 신명, 풍월동락’, 동리예술단의 ‘소리길, 동리정사에 다시 피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판소리 한마당’과 함께 개최되는 ‘고창지역 판소리 유적지 탐방’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탐방은 해설사와 함께 판소리 다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호 고택과 국내 제1호 고창 판소리박물관, 성음·정악에 정통한 이재 황윤석 생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 만정 김소희 생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 생가 터를 탐방하며 고창지역 판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판소리 유적지 탐방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 접수나 문의는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